

새로운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한신협·리얼미터 신년 여론조사-호남권 1023명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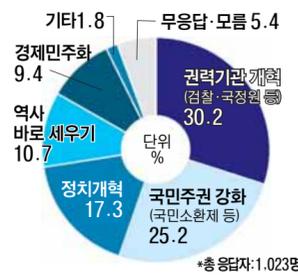
호남 상생 “잘못하고 있다” 56.3%... “잘하고 있다” 16.8%

정치권에서 쏠쏠 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 지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과제로,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주권 강화 우선순위를 꼽았다. <관련기사 3면> 이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인 광주일보와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광주·전남·전북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맞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호남 지역민 30.2%가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5.2%였으며, 정치개혁이 17.3%로 뒤를 이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탓인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10.7%였으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꼽은 응답자도 9.4%였다. 기타 과제는 1.8%였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들도 올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는 등 우리사회의 권위주의 부패 척결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더민주는 최근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권위주의와 부패·정경유착 청산과 시민민주주의 회복 운동을 위한 개혁입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재벌개혁과 검찰·언론개혁, 정치·사회 개혁 등 4대 개혁 입법을 늦어도 2월까지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분당에 나온 개혁보수신당도 최근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등의 개혁 입법을 검토중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민선 6기 들어 ‘호남권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추진중인 호남 상

■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시급 과제



생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민 56.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5.4%,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스마트폰 앱·자동응답 혼용 무선(85%)·유선(15%) 임의 전화결기(RDD) 및 스마트폰 알림 혼용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8.0%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현석기자 cki@kwangju.co.kr



정유년 첫 수산물 경매 목포 수산업협동조합은 2일 목포수협 위판장에서 2017년 선어 및 새우 첫 위판 초매식을 갖고 정유년 첫 수산물 경매를 시작했다. /최현석기자 choi@kwangju.co.kr

AI 50일... 닭·오리 3000만 마리 살처분

해남 오리농장 추가 확진 판정

해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왔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축출하 과정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확인된 해남군 화산면 육용오리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 검역본부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전남 AI 확진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늘었다. 살처분 규모는 122만 3000마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초의 의심 신고 이후 49일째인 이날 0시 현재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2998만 마리로, 3000만 마리에 육박한다. 최근 폐사신고가 접수돼 H5N6형 바이러스가 확인된 나주 반남면 육용오리 농

장도 추가로 고병원성 확진이 유력하다. 해남에서는 지난해 11월 16일 전국 가금류 농장 가운데 최초로 AI가 발생한 산이면 산란계 농장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두 번째 확진 판정이다. 한편 경기도 포천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고양이가 2마리가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된 가운데 해당 고양이가 접촉한 사람 중 현재까지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당국이 밝혔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송정~고막원 구간 호남고속철 2단계 착공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이 본격화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2일 광주 송정~고막원 구간(26.04km)의 기존선을 고속화하는 사업을 착공했다. 충북 오송역부터 광주 송정역까지 잇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은 2009년 공사를 시작, 지난 2015년 4월 개통했다. 철도공단은 오는 2018년 말까지 호남선 광주송정~나주~고막원까지 기존 선로의 노반과 궤도, 전력·신호·통신 체계 등을 개량할 방침이다. 이 구간은 공사가 끝나면 최고 시속 230km로 운행할 수 있게 돼 이동 시간이 기존 13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 고승차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 바둑 영재 김근태·박동주 ▶6면
4차 산업혁명 ‘상상 이상의 삶’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알립니다



창사 65주년 광주일보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됩니다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와 함께 호남 대표 정론지인 광주일보가 창사 65주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 대선의 해를 맞아 광주일보는 호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알찬 연중 특집을 연재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합니다.

① 전라도 1000년 ‘新湖南誌’, 최진석의 ‘老莊의 생각’ 연재

내년은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입니다. 이에 ‘新湖南誌’에서는 대표적인 호남학 학자와 문인, 작가들로 구성된 필진이 우리나라 역사 고비마다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호남의 자취를 되돌아 보고 새로운 1000년의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피폐한 물질 만능시대에 ‘인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제시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노자와 장자의 사유체계를 통해 참된 삶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② ‘청년이 미래다’ ‘통일의 길-탈북민의 삶과 꿈’ 시리즈

‘헬조선’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땀방울을 통해 희망의 빛을 찾아갑니다. 문화예술, 창업, 귀농·귀어 등으로 지역 활력소인 젊은 일꾼들의 치열한 삶을 소개합니다. 전국 3만, 광주 전남 2000명 탈북민의 절절한 사연을 전하고 통일을 위해 고민하는 ‘함께 걸어요 통일의 길-탈북민의 삶과 꿈’ 시리즈를 통해 언젠가는 함께 어깨동무해야 할 북한 동포들과의 거리를 좁히게 됩니다.

③ ‘영호남 문화대축전’ ‘달빛소나기’ 동서 교류사업 확대

동서화합과 영호남 동반성장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광주일보-매일신문이 공동 주관해 올해 네 번째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을 개최합니다. 또 지난해 처음 대구에서 영남일보와 함께 양 지역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개최했던 ‘달빛 소나기’는 광주에서 진행됩니다.

④ ‘서시’ 운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문학기행·추모행사

광주일보는 지난해 저명한 계간지 ‘시산맥’과 ‘운동주 서시 문학상’을 공동으로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운동주 시정신을 구현하고 순수한 문학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시리즈를 필두로 중국 운동주 생가 방문 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운동주 문학의 자취가 응결된 남도의 공간에서 다양한 추모 및 선양사업도 병행합니다.

⑤ 품격 높은 공연으로 지역문화 업그레이드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연주자를 초청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칩니다. 3월 중 광주에서 가장 첼리스트 정명화, 세계적인 연주자로 뻗어나가는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함께 하는 피아노 트리오는 잊지 못할 감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고급 문화 향유의 기회를 선사하겠습니다.

⑥ 한·중 수교 25주년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 추진

한국과 중국은 올해로 정식 수교 25주년(8월 24일)을 맞이합니다. 광주일보는 한·중 협력 강화를 위해 수교 기념일을 전후해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5000여 명에 이르는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등 순수 민간 차원의 교류 행사도 진행합니다.

光州日報社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